中國語文學 第54輯(2009. 12) 545-562쪽

영어의 전성과 중국어의 겸류

박 기 현*

<目 次>

Ⅰ. 서 론
Ⅱ. 전성과 겸류
Ⅲ. 전성의 기제
Ⅳ. 전성과 언어유형
Ⅴ. 결 론

Ⅰ. 서 론

전성(Conversion)이란 형태상의 어떤 부수적인 변화도 없이 어휘의 문법범주를 바꾸는 과정으로 영파생(zero-deriva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영어의 전성에는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성이나 동사에서 명사로의 전성, 형용사에서 동사로의 전성 등 다양한 예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영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성이며 이 문제를 다루는 논문 또한 가장 많다. 영어의 전성 문제를 살피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어의 활용이나 겸류를 떠올리게 된다. 사용되는 용어는 다르지만 두 언어에는 모두 특정 품사의 단어가 형태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다른 품사의 단어로 쓰이는 현상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성이란 무엇이고 유형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에 속하는 영어와 중국어가 왜 전성 문제에서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것일까? 이런 질문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우선 전성이 무엇인지, 겸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전성과

*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www.kci.go.kr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한 뒤 마지막으로 이런 주제들과 언어유형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전성과 겸류

1. 전성이란

스포츠용품 회사인 adidas사는 몇 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광고카피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1)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광고카피가 그동안 자주 사용되면서 지금은 전혀 어색하지도, 부자연스럽지도 않지만 처음에는 적지 않은 주목을 끈 바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점은 impossible의 쓰임새이다. 형용사임이 분명한 단어를 명사화와 같은 형태적인 변화과정 없이 명사처럼 주어로 쓰고 있는 것이다.[1)]

이런 현상을 Tuggy(2005)는 "You simply plop a word into a construction requiring the 'wrong' category and let people figure out what you mean (한 단어를 '잘못된' 범주를 요구하는 구조에 넣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내도록 한다)"고 표현했다. 또 유명한 만화인 Calvin and Hobbes에서는 "Verbing nouns weirds language(동사화된 명사가 언어를 이상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동안에

1) 물론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the+형용사, 분사'가 복수 보통명사(~하는 사람들) 또는 추상명사(~한 것)의 의미로 쓰일 수 있듯이 'impossible' 역시 'do the impossible'과 같은 쓰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the'가 쓰이지도 않았고 또 'impossibility'라는 명사형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목을 끈다.

www.kci.go.kr

도 verb라는 명사를 동사로 사용하고 weird라는 형용사를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만화는 영어에서 이런 '이상스런' 쓰임이 그만큼 많이, 일상적으로,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에서는 단어의 이런 '잘못된' 혹은 '이상스런' 쓰임을 보통 전성(Conversion)이라고 부른다.

영어에서 전성이란 정확하게 '형태상의 어떤 부수적인 변화도 없이 어휘항목이 범주를 바꾸는 과정(Lieber, 2005)[2]'으로 정의된다. 상술한 형용사에서 명사로의 전성 외에도 다양한 품사간의 전성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명사와 동사간의 전성이다. 예를 들면,

(2) I walked five miles to school.
(나는 5마일을 걸어서 학교에 갔다)
He often took long walks in the hills.
(그는 종종 언덕에서 긴 산책을 한다)
(3) I'll answer that again.
(나는 다시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This is my final answer.
(이것이 나의 마지막 대답이다)

여기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walk와 answer는 위의 예문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아래 예문에서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 즉 형태적인 변화 없이 단어가 문법범주(품사)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영어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언어에도 나타난다. 기주연(1992)에서는 한국어의 전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의미상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

2) Conversion—at least in analytical languages like English—is the process by which lexical items change category without any concomitant change in form.

www.kci.go.kr

른 통사범주(품사)로 기능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전통문법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품사의 전성' 또는 '품사의 통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파생어 형성의 관점에서는 이를 '영접사파생' 혹은 '영변화파생'이라 일컫기도 한다.

한국어 전성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이홍식, 1996).

(4) 나는 그곳으로 가까이 갔다.
우리 집 가까이에 공원이 있다.
(5) 영희는 물음에 잘못 대답했다.
철수는 잘못을 뉘우쳤다.

(4)의 위의 예문에서는 '가까이'가 부사로 쓰이고 있고 아래 예문에서는 명사로 쓰이고 있으며 (5)의 위의 예문에서는 '잘못'이 부사로 쓰이고 있고 아래 예문에서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전성과 겸류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 전성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전성 간에는 차이도 있다. 한국어에도 부사와 명사 간에, 형용사와 동사 간에 등 다양한 전성이 존재하지만 그 예가 많지 않고 새로운 예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반면 영어에는 그 예가 많고 또 새로운 예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예이다. 영어에서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성을 예를 들면,

(6) The world's No. 1 search engine Google ranked second last year.
(세계 제일의 검색엔진 구글이 작년에는 2위를 기록했다)

www.kci.go.kr

Mary googled for recipes.
(메리는 구글을 이용해 요리법을 찾았다)

(7) A Taser works only within a limited distance.
(테이져는 제한된 거리에서만 작동한다)
They are going to taser a prisoner for refusing orders.
(그들은 규율을 어긴 죄수들에게 테이져를 사용할 것이다)

google이란 인터넷 검색사이트 명칭으로 일종의 고유명사였던 것이 지금은 '이곳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taser는 미국 전기충격기 명칭으로 경찰이 이 전기충격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는가와 관련된 논쟁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다'라는 뜻의 동사 용법이 사용된 바 있다.

대개 다른 전성의 예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것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기능이 먼저인지 등에 관해 통시적인 관찰이 요하지만 이런 예는 전성의 과정과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흥미를 끄는 예들이다. 이런 예들이 흥미로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국어에도 한 단어를 '잘못된' 범주를 요구하는 구조에 넣는 '이상스런' 쓰임이 적지 않고 또 어떤 예는 아주 최근에 만들어져 새로운 쓰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순서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8) 辛苦了一周的人们也愿"猫"在家里睡懒觉。
(한주간 고생한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집에서 늦잠자기를 원한다)
(9) 韩五大炼油厂黑国家1000亿。
(한국의 5대 정유사가 국가의 1000억원을 몰래 챙기다)

(8)에서는 명사임이 분명한 猫가 동사로 쓰이고 있고 (9)에서는 형용사 黑가 동사로 쓰이고 있다. 물론 이런 '잘못되고' '이상스런' 쓰임이 모두 널리 받아들여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품사의 단어로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상술한 예 이외에도 다양한 '잘못되고', '이

www.kci.go.kr

상스런' 쓰임이 현재도 존재할 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10) "生"了股市，不能"熊"了办公室。
(주식시장을 일으킨다고 사무실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 这种房子最特色了。
(이런 집이 가장 특색 있다)

이렇듯 영어와 중국어에는 분명히 특정 품사에 속하던 단어를 아무런 형태적인 과정 없이 다른 품사의 단어로 '잘못', '이상스럽게'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중국어에서는 전성이라는 용어 대신 '활용(活用)' 혹은 '겸류(兼类)'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관련 현상을 나타낸다. 원래 한 품사에 속하던 단어가 새롭게, 임시로 다른 품사로 기능하는 경우를 보통 '활용'이라고 부르고 이 활용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오랜 시간이 흘러 다른 품사의 단어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경우를 보통 '겸류'라고 부른다[3].

Ⅲ. 전성의 기제

1. 영파생과 환유

영어에서 어휘항목의 품사범주가 바뀔 때는 일반적으로 형태적인 변화를 수반하는데 전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소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주목을 끌어왔고 전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많은 용어들이 사

3) 譚景春(1998)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현상을 품사전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품사의 전환은 하나의 과정으로 겸류(兼類)와 활용(活用)을 포함하는데 겸류는 품사 전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활용은 품사전환의 진행과정 혹은 임시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겸류와 활용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활용에서 겸류까지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며 과도기에 있어 이 둘 간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www.kci.go.kr

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ee(2009)에서는 전성에 관한 여섯 가지 견해를 소개했는데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영파생설과 환유설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영파생 접근이다. 이런 접근법에서는 전성을 파생법의 일종으로 보아 다른 파생법처럼 기본 형태에 접사가 붙어 전성단어가 형성되는데 단지 이때 접사가 음성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영(zero) 접사에 의한 파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환유적 접근이다. 인지적 환유 확장은 의미적 관련성에 기초해 기존 단어의 새로운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환유설과 관련된 것이 기존 단어가 새로운 단어로 인식된다는 재목록화나 재범주화이다.

영파생 접근의 장점은 비교적 명확한데 그것은 조어법[4] 체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어법이 크게 합성법과 파생법으로 나뉘고 전성도 일종의 조어법이라고 한다면 영접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파생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을 일종의 파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른 파생으로부터의 유추이다. 전통적으로 전성에는 동일 파생 기능의 형태론적 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하곤 했다[5]. 예를 들면,

(12) I'll answer that again(나는 다시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 This is my final answer(이것이 나의 마지막 대답이다)
I'll announce that again(나는 다시 그렇게 알릴 것이다)
: This is my final announcement(이것이 나의 마지막 알림이다)
(13) answer동사 : [answer동사+Ø]명사
= announce동사 : [announce동사+ment]명사

동사 announce에 명사 형성 접미사 교체형 −ment가 붙어 announcement

4) 실제로 영어에서 전성(conversion)이나 영파생(zero−derivation)은 조어법(word formation)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5) (3)과 (12), (13)의 예문과 유추와 관련된 설명은 정한성(1993)에서 인용하였다.

www.kci.go.kr

라는 명사가 파생되듯이 동사 answer도 파생 접미사의 위치에 무형의 교체형이 붙어 명사 answer가 파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의 전성에는 영파생이나 영접사화로 설명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 다양한 전성현상에 사용된 것이 어떤 종류의 파생접사인지, 접두사인지 접미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파생에 다양한 접사가 쓰일 수 있고 또 접두사일 수도 접미사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영(zero)이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불확실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둘째, 전성의 경우 접사에 의해 파생된 경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영파생에 쓰이는 영접사도 일종의 접사라면 형태적인 그리고 통사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접사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영파생 접근에서는 전성동사 grandstand가 왜 grandstood가 아닌 grandstanded를 취하는지, 전성된 동사가 –ize에 의한 파생의 경우보다 논항구조에서 더 다양한 구조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Lieber, 2005).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전성을 환유나 배경/윤곽 전환을 통한 재목록화나 재범주화로 보는 것이다. 특히나 중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영파생 접근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접사 파생의 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영어에서는 품사범주가 바뀔 때 일반적으로 파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파생법으로부터의 유추를 통해 영파생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Quirk & Greenbaum(1973)는 조어법 부분에서 전성을 소개하기에 앞서 접두사나 접미사를 통한 다양한 파생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중국어에도 파생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접사의 수 자체도 많지 않고 또 품사범주를 바꾸는데 파생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명사와 동사간의 전성은 영어나 중국어에서 모두 비교적 그 예가 많지만 다른 품사의 경우 상황이 약간 다른데 영어에는 명사에서 형용사로의 전성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중국어에는 이런 전성이 꽤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면,

www.kci.go.kr

(14) 厂家的答复我都不好意思说，很官方，很军人，很国营。
(생산자의 답은 나도 말하기 좀 부끄럽게 아주 관료적이고, 군대적이고, 국영다웠다)
(15) 立场和思考也都非常"中国"，没有牵强附会地把西方的东西拉进来。
(입장과 생각은 모두 아주 중국적이고 전혀 서양의 것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았다)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슷한 상황에서 영어에서는 파생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16) Lebron is on a Jordanlike level right now.
(리브론은 지금 바로 조던과 같은 수준에 있다)
(17) Jordanless Chicago is looking for a champion.
(조던이 없는 시카고가 챔피언을 바라고 있다)

이렇듯 중국어에서는 품사범주가 바뀔 때 파생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추가 설득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전성은 환유에 근거한 재목록화나 재범주화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

명사에서 동사나 형용사로의 전성은 일종의 환유, 즉 실체를 통해 실체와 관련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초언어적인 지식에서 연관된 개념들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배경과 윤곽의 조절이 개입된다. Langacker(1987: 163-175)는 언어 의미론은 백과사전적(encyclopedic)이며 지식체계의 망모형에서 어휘단위는 관습적으로 결정된 지식체계에의 접근점(point of access)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래내커의 주장에 가장 잘 들어맞는 예가 전성이라고 생각된다.

www.kci.go.kr

2. 전성의 기제

영어에는 단어들간의 다양한 전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품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성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사 → 명사: love, walk, cheat 등
형용사 → 명사: daily, comic, married 등
명사 → 동사: bottle, knife, mail 등
형용사 → 동사: dirty, empty, black 등

이 외에도 조동사나 접속사가 명사로 쓰이는 예나 단어가 아닌 구가 명사로 쓰이는 예나 심지어 단어의 자격이 없는 형태소가 전성되어 단어로 쓰이는 예도 있다. 그리고 품사의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같은 품사 내에서 품사의 하위 범주 간에 전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6]

하지만 영어에는 어휘항목의 품사범주가 바뀔 때 사용할 수 있는 '잘못되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형태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성을 영파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어의 '잘못된', '이상스런' 쓰임이 존재하는 것일까.

영어의 많은 전성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가장 생산적인 것은 단연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성인데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성이 유독 그 수가 많고 생산적인데 대해 일반적으로 언어기호 활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관련 현상을 설명한다.[7] 경제성이란 첫째, 어느 언어에서든 명사의 수가 동사보

6) Quirk & Greenbaum(1973)는 상술한 예들 외에 주요범주가 아닌 전성의 예로 폐쇄어에서 명사로의 전성(a must), 구에서 명사로의 전성(the also-rans), 구에서 형용사로의 전성(under-the-weather), 접사에서 명사로의 전성(other isms) 등을 들고 있다. 그 외 품사의 하위범주간의 전성의 예로 명사의 경우 불가산명사에서 가산명사(two coffees), 가산명사에서 불가산명사(a few square feet of floor)로의 전성이나 동사의 경우 자동사에서 타동사(run the water), 타동사에서 자동사(reads well)로의 전성 등의 예를 들고 있다.

www.kci.go.kr

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명사를 이용해 관련된 동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둘째, 명사는 단순히 어떤 실체를 나타내지만 동사는 실체가 포함된 과정을 가리키므로 동사가 명사보다 더 많은 개념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같은 언어기호로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경제성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위에서 제기한 더 일반적인 파생법이 있는데도 '왜' 전성이 사용되는가와 이런 설명이 명사-동사전성 외에 다른 품사 간의 전성에, 영어 외의 다른 언어의 전성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만족스런 대답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명사-동사 전환에는 -ify, -ize와 같은 접미사를 통한 파생이 가능하고 이때도 명사가 나타내는 개념내용보다는 여기서 파생된 동사의 개념내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경우 刘国辉(2007)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품사간의 전환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동사에서 명사로의 전환은 보편적인 반면 명사가 다른 품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아주 적다고 한다. 刘国辉는 그 이유를 현저성에서 찾고 있다. 명사는 사물을 나타내므로 느낄 수 있고 독립성을 띠지만 동사는 사물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느끼기 힘들고 의존성을 띠고 그래서 명사가 동사보다 인지적으로 현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은 영어의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성을 설명하는데, 현저성은 중국어의 동사에서 명사로의 전성을 설명하는데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두 설명을 한데 두면 곧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여기서 전성을 설명하며 언급된 경제성이나 현저성은 분명 전성과 관련은 있지만 전성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다.

7)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성에 대한 경제성 설명은 주로 刘正光(2000)과 何星/孙金华(2007)에서 참고하였다.

www.kci.go.kr

Ⅳ. 전성과 언어유형

1. 전성과 언어유형

전성과 관련되어 徐盛桓(2001)은 영어 문장에서 서술어 위치에 명사가 나타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데 화자가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고 관습적인 규범을 따르기 위해 문법에 맞는 외형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명사에 동사의 외형을 갖추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18) He 747ed to Paris.
(그는 747을 타고 파리로 갔다)

위의 예문에는 동사가 없지만 문장에서 동사가 없어서는 안 되므로 다른 실사를 동원해 부족한 문법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때 도구가 목적지보다 동사와의 관계가 밀접하므로 동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도구인 747이 동사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전성은 마치 어떤 문장이 실제로 쓰이고 이 문장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후에 생겨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떻게 문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술어가 없는 적법하지 않은 문장이 발화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 중국어에서도 단어의 '잘못되고' '이상스런' 쓰임에 대해 그것은 수사적인 효과 등을 위해 잠시 빌려 쓴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 인용기호와 같은 특별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9) 中国是十分够"哥们"的。
(중국은 정말 충분히 친구다웠다)

하지만 '수사적'이든 '잠시'든 이런 발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변화

www.kci.go.kr

가 없고 역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단어의 기능 전환에 앞서 먼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기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영어와 중국어의 전체적인 언어유형과 관계가 있다.[8)]

상술한 바와 같이 영어의 전성과 중국어의 겸류는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두 언어에서 모두 전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전성이라는 현상 자체는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지만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그 수도 많고 또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어휘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고 또 특별하다는 것이다. 둘째, 전성은 단순히 어휘뿐 아니라 그 과정이 통사적인 현상과 연관되고 또 이런 통사현상이 영어와 중국어의 전체적인 언어유형과도 연관된다는 의미이다.

2. 분석어와 종합어

언어유형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중 형태론적인 각도에서 언어유형을 분류하면 분석적인 언어와 종합적인 언어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 Bybee(1985: 97, 98)에 따르면 형태론적 유형론의 기초는 형태소 융합의 정도인데 분석적(analytic) 언어에는 형태소의 융합이 없고 각 형태소는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 반면 종합적(synthetic) 언어에는 형태소의 융합이 일어나서 결국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단어들이 있다. 이런 융합의 각도에서 보면 교착어(agglutinative)와 융합어(fusional)는 모두 종합적인 언어에 속하는데 다만 교착어는 형태론적 경계가 명확해 형태소간의 분절이

8) 이와 관련해 Stekauer(2005)는 초언어적 현실에 대한 관념적인 평가는 언어학적 과정에 앞서며 이것이 전성을 영접사화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www.kci.go.kr

명확하고 융합어는 고도의 융합으로 형태론적 분절이 힘들다. 분석적 언어에서는 개념을 단어로 합치지 않거나(중국어) 아주 경제적으로만 그렇게 한다(영어, 프랑스어) 분석적 언어는 문장이 주가 되고 단어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언어유형 분류에 따르면 영어와 중국어는 융합어(굴절어)와 고립어로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기도 하지만 종합성의 측면에서는 모두 분석적인 언어에 속한다. 전성에 있어 분석적 언어로서의 특징은 중요하다. 조성식(1994: 19-46, 112)에 따르면 현재 영어는 분석어의 성격이 강한데 이 때문에 낱말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고는 품사를 식별하기 힘들게 되었고 문중에 들어가서 담당하게 되는 문법적인 기능을 보고서야 낱말의 품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문장 내에서 단어가 형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나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문장 전체의 단어 배열 순서나 허사와 같은 통사적인 방법에 더 의존하게 된다.

영어의 분석적 성격에 대한 이런 서술은 중국어의 특징을 기술하며 자주 언급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분석적인 언어, 통사적인 언어라는 특징은 전성의 기초가 된다. 개별 단어가 형태론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전에는 형태론적으로 표현되던 것들이 통사적으로 표현되고, 단어가 문장 전체를 떠나서는 그 범주를 확정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범주가 확정되지 않은 단어들은 품사를 넘어선 '잘못된', '이상스런' 사용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

단어들은 문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품사범주가 확실하지 않고 또 문장 속에서도 자신의 지위나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들이 범주를 넘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혁신적인 표현이 언어사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의 혁신적인 쓰임을 기존 단어의 뜻과 해당 단어가 문장 내에서 담당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www.kci.go.kr

(20) 保持平常心当然最好，实在不行也可以“阿Q”一下，以自嘲、自慰的方式获取心理的平衡。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지만 정말 안 되면 한번 ‘阿Q’ 해서 자소와 자위의 방법으로 심리적 균형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阿Q의 ‘잘못되고’ ‘이상스런’ 쓰임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阿Q정전’에서 阿Q의 전형적인 행동과 阿Q가 문장 내에서 서술어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보고 ‘阿Q처럼 그렇게 하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영어와 중국어는 모두 분석적 언어라는 특징으로 인해 전성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점은 중국어는 처음부터 분석적인 언어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영어는 굴절형이 완전한 종합어였다가 차츰 굴절형이 사라지며 분석어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굴절형이 완전하고 종합적인 예들과의 비교를 통해 전성을 영파생이라는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국어는 처음부터 고립어, 분석어로서의 성격이 분명했기 때문에 영파생 분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Ⅴ. 결 론

우리는 위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성과 겸류, 활용은 모두 분석적 언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둘째, 영어와 중국어의 구체적인 발전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든 지금 현재 중국어와 영어는 굴절이 없는 분석적인 언어이고 이런 특징 때문에 전성과 겸류라는 문법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셋째, 인지적인 재범주화가 언어학적 과정에 앞선다. 따라서 전성과 겸류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다루는 인간의 인지문제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몇 가지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문제들도 적지 않고 본 논문의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전성이나 겸류가 환

www.kci.go.kr

유나 재범주화 등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 면에서 아직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 개별 언어에서의 전성현상이 충분히 연구되었다고 해도 왜 영어와 중국어에서 구체적인 전성의 내용과 그 방향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전성과 파생이 모두 가능하다면 둘 간의 차이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參考文獻>

기주연, <근대국어의 영접사파생에 관힌 고찰>, ≪국어국문학≫ 108, 1992.

박기현/최봉랑, <중국어 명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국어문학≫ 45, 2005.

이홍식, <현대국어의 영접사 파생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37, 1996.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정한성, <무형파생의 방향성>, ≪영어영문학≫ 21, 1993.

조성식, ≪영어발달사≫, 한국문화사, 1994..

高芳/徐盛桓, <名动转用与语用推理>, ≪外国语≫126, 2000.

何星/孙金华, <识解操作与名动互转>, ≪外语研究≫102, 2007.

刘国辉, <名词与动词的认知问题以及转换效用>, ≪外语教学≫ 25, 2004.

刘国辉, <动词名化的两性特征:动词性与名词性共存表征及其理据>, ≪国外外语教学≫ 3, 2007.

刘正光, <名词动用过程中的隐喻思维>, ≪外语教学与研究≫ 32, 2000.

彭月华/刘正光, <名词动用研究中的几个问题>, ≪外语学刊≫ 139, 2007.

谭景春, <名形词类转变的语义基础及相关问题>, ≪中国语文≫ 5, 1998.

王冬梅, <动词转指名词的类型及相关解释>, ≪汉语学习≫ 4, 2004.

刑福义, <"很淑女"之类的说法－语言文化背景的思考>, ≪语言研究≫ 2, 1997.

徐盛桓, <名动转用的语义基础>, ≪外国语≫ 131, 2001.

www.kci.go.kr

徐盛桓, <名动转用与功能代谢>, ≪外语与外语教学≫ 148, 2001.
周领顺, <英汉名动转类词对比研究>, ≪外语教学与研究≫ 32, 2000.
周领顺, <英汉转性词的理论问题>, ≪外语与外语教学≫ 136, 2000.
周启强, <原型范畴与英语转类构词>, ≪中国外语≫ 26, 2008.
Bybee, John,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이성하. 구현정 역, ≪형태론≫, 한국문화사, 2000)
Lanagker, Ronald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1987, (김종도 역, ≪인지문법의 토대≫, 박이정, 1999)
Lee, Yongsung, <Conversion as Zero Affixation: Evidence from Affix Interaction>, ≪영어학≫ 2009.
Lieber, Rochelle, ≪Handbook of Word-Formation: English word-formation processes: pp.375-427≫, Springer Netherlands, 2005.
Quirk, Randolph & Greenbaum, Sidney,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Longman, 1973.
Stekauer, Pavol, ≪Handbook of Word-Formation: Onomasiological Approach to Word Formation: pp.207-231≫, Springer Netherlands, 2005.
Tuggy, David, ≪Handbook of Word-Formation: Cognitive Approach to Word-Formation: pp.233-265≫, Springer Netherlands, 2005.
Ungerer, Friedrich,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Word Formation: pp.650-675≫,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中文摘要>

转类(Conversion)是不经过任何词型上的变化, 改变某一个词的语法范畴(词类)的过程, 转类也叫零派生(zero-derivation)。在英语, 转类能适用于许多词类之间, 其中最常见的是名词和动词之间的转类, 尤其是从名词到动

www.kci.go.kr

词的转类。我们观察英语的转类现象自然可以联想到汉语的兼类。虽然叫法不一样，但看它具体内容，英语的转类和汉语的兼类指的都是基本相同的语法现象。那么转类现象的本质是什么，为什么属于不同类型的两种语言都有转类现象？本文就这些问题进行了讨论，并得出了如下结论。第一，之所以出现转类和兼类，主要是因为英语和汉语都属于分析型语言。第二，所不同的是古代英语本来是一种综合型语言，但在后来的发展过程中曲折变化逐渐消失，现已成为一种分析型语言，但汉语从古至今一直是典型的分析型语言。第三，认知上的再范畴化先于具体语法操作，所以转类和兼类本质上是理解和处理语言的人类的认知问题。

虽然本文就英语转类和汉语的兼类问题进行谈论，并得出了一些结论，但有些问题还没有彻底解决。首先转类和兼类确实跟再范畴化有密切的联系，但转类具体经过什么样的途径进行？其次，英语转类和汉语兼类指的都是基本相同的现象，但两种语言在转类的具体内容和转类方向上为什么有不同的地方？第三，从某一类词转成另一类词，有时派生和转类两种方法都可以用，那么派生和转类的区别在哪儿？诸如此类的问题仍有待解决。

주제어 : 转类，兼类，零派生，分析型语言

www.kci.go.kr